

## 직원사랑과 新기술개발로 경기불황을 타개!!

최근 미국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산업 각 부분의 경기 침체가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회사는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직원 사랑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이념 아래 회사와 직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초청 간담회를 지속해 호평받고 있고, 경제위기 속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부산시 내외 주요 호텔과의 협약 등 강화된 복지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ASME "u", "s" 스템프 취득을 위한 노력과 풍력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Stern tube unit 개발과 MCC Filter 및 크루즈 선용 Silencer를 개발하고 있다. 두 손뼉도 잘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앞으로도 회사와 직원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계속될 것이며,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 가족초청간담회

함께여서 좋은 '가족초청간담회', 기분 좋게 마무리

가족 친화 기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가족초청 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지난 21일 진행된 가족초청 간담회에서는 경영지원 경영기획 기술영업 팀 직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함께 한 가족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다른 동료 직원분 가족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가족 초청 간담회는 가족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가고 가족 간의 친밀감 증대와 회사와 가족 간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호텔 회원 협약



세계경제의 한파가 조선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회사는 오히려 직원 복지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 내외 주요 호텔과 협약을 맺어 호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가능한 주요 호텔로는 해운대 센텀호텔, 해운대 그랜드호텔, 현대호텔(경주, 목포, 울산, 제주)로 숙박요금의 60%에서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무료 사우나와 조식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 외 다양한 혜택은 각 호텔 홈페이지 참조)

호텔을 이용하고 싶은 직원은 총무안전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직증명서와 회원카드를 교부받아 호텔 이용시 제출하면 된다.

경제난국을 타파하는 원동력은 가족이라는 최강식 대표 이사의 생각 아래 시행된 이번 복지제도로 직원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진해운 권해룡상무님 일행 당사 방문



우리 회사의 선주사인 한진해운 권해룡 상무님 일행이 4월 1일 우리 회사를 방문 하였다.

이날 방문은 다대 선보공업 외 구평 및 영도 공장을 아우르는 방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장 견학 및 UNIT 탐방을 병행하였다. 방문단 일행은 특히 BLOCK UNIT에 중점적으로 시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입사를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새내기들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영지원 : 윤부현 / 자재조달 : 권구연  
생산관리 : 조재현 / 경영지원 : 이영식



##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개발로 직원과 회사가 상생

우리 회사는 직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교육과 기술개발에 있다고 보고 그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과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장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는 교육과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사업 그리고 풍력개발, ASME 본심사 승인이 바로 그것이다.



사내 교육

### 용접교육 교육을 통한 새로운 길을 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현장자격증 제도의 연계과정으로 지난 달 18, 19일에 용접교육이 실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떠나 현장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고 현실적 도움을 높이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총 17명이 참석하였고 교육 후 치러진 2급 시험에 13명이 응시하여 12명이 합격한 상태이다. 그만큼 교육의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처음 진행된 용접 교육인 만큼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도 높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연습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참여 직원 모두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어 본인 스스로도 만족한 모습으로 교육을 끝마칠 수 있었다. 처음 계획보다 직원들의 많은 관심으로 교육 일정이 늘어나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요청과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용접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직원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교육은 계속 될 것이다.



회사 소식

### 기술성장, 신사업 발굴

##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로부터 풍력인증 획득



우리 회사가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로부터 풍력 인증을 받았다. 이번 풍력 인증은 우리 회사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은 기술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획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풍력핵심연구센터에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풍력기술관련 자문·상담과 보유 분석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 풍력기술 강좌와 실무기술교육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풍력기술 현황과 관련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세미나, 워크샵 초청 등으로 새로운 기술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우리 회사도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풍력 인증으로 우리 회사의 보다 뛰어난 기술성장을 기대해 본다.

회사 소식

### 기술성장, 신사업 발굴

## ASME 본심사받아 긍정적 결과 기대



지난 달 18일에서 19일 양일에 걸쳐 ASME (American Society Mechanical Engineers) CERT의 본 심사가 실시되었다. ASME CERT는 ASME의 자격인증제도로 설계, 제작, 시공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를 인증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이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ASME의 심볼 마크를 제품에 각인함으로써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이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ASME의 심볼 마크를 제품에 각인함으로써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최홍렬 상무의

### 이 한편의 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그라민은행은 현재 방글라데시 전역에 1,175개의 지점을 두고 240만 명에 1,600억 타카(약 3조 3,600억 원)를 융자해 주는 직원수 1만 2,000여 명의 대형 은행이다. 재정구조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런데 이 은행의 성공에 세계가 주목하고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라민 은행은 제도 금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갖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엎는 '소액신용융자(Microcredit)' 라는 획기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방글라데시 인구의 10%가 넘는 240만 가구의 생활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그라민 은행은 인간은 기아나 가난으로 고통받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 한 경제학자의 신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신용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믿었고, 가난한 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끔 도왔다.

이 책은 유누스 총재의 자서전이다. 그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가난과 싸워 이기려면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점인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난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천 여행지

진해드림파크

황홀한 자연을 맛보다  
'진해드림파크'



계절의 여왕 봄 그리고 4월, 어느 덧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봄의 전령사' 꽃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만발한 꽃과 함께 하는 것이 봄을 즐기기에 제일이다. 섣달의 개나리와 짙은 진달래, 그리고 단연 으뜸인 벚꽃 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놓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봄이면 그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중 하나가 진해이다. 올해도 진해로 벚꽃 놀이만 간다면? NO! 지난 달 20일 진해에 꿈의 공원이 문을 열었다. 갑갑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맑고 시원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푸르른 숲속을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공원 '진해 드림파크' 가 바로 그것이다.

도심 속 공원을 찾기 어려운 부산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진해 드림파크는 진해 시청 뒤편 산림에 위치하여 거의 산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로 꾸며져 있다.

드림 파크는 경남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수목이 자라고 있는 126ha에 달하는 대규모 난대림 수목의 생태자생지로, 사계절 동·식물을 직접 관찰·체험할 수 있다.

생태숲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진해만 생태숲, 사계절 계곡물이 흐르고 다양한 수목이 줄지은 광석골 섬터, 나무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숲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또 중앙광장, 관찰데크, 잔디광장 등 휴식 공간과 가까운 곳의 자연생태습지에서는 연꽃, 참포 등 수생식물과 어류 양서류 등 다양

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학습장소로도 제격이다.

진해 드림파크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진해만 생태 숲과 해안지대가 접해 있어 아름다운 숲과 진해만의 파노라미한 바다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입장료도 없어 공원 내 전시관과 체험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각 시설마다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 자동차를 타고 공원 안 이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진정한 숲을 느끼기 위해서는 잠시 자동차에서 내려 숲속을 거닌다면 업무에 지친 피로도 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은 나들이 공간이다. 도시에 쪼든 아이들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나무의 소중함도 일깨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평소 등산을 좋아한다면 3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도 드림파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고 10시부터 5시까지만 공원이 개방된다. 산 전체가 하나의 공원인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부족할 수도 있다. 좀 더 여유롭게 돌아보려면 드림파크 내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박이 가능하니 미리 예약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햇살 좋은 봄날 도심에서 벗어나 꿈의 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협력업체탐방

상부상조의 길에서 만난  
'덕성 ENG'

덕성 ENG는 1999년 설립된 선박 SUS 배관 전문 업체이다. 설립이후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고 부산에서는 SUS를 제일 먼저 보급하여 탄탄한 입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선보와는 인연을 맺은지 3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 SUS 파이프 물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인 납품을 시작한 FPSO에서도 함께 작업을 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다.

이렇게 선보와 함께 하기까지 우여 곡절도 많았다. IMF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공백기를 거쳐야만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품질을 인정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후 지금의 덕성 ENG가 탄생되었다.

인연의 끈 그리고 인간미

회사 설립에서부터 선보와의 인연이 시작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덕성 ENG. 신철철 대

표이사는 "누구보다 선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공적인 부분만 신경 썼다면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보와 함께 하면서 많은 부분을 도움 받았고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우려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고 말했다.

덕성 ENG는 자체적인 불량을 최대한 줄일려고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업체의 불량까지도 손수 찾아보고 무상으로 봐줄 만큼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소화해 내는 등 우리회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업체다.

앞으로도 계속 선보와 덕성 ENG가 돕고 베풀며 상호 보완해 나간다면 더 큰 성장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닐 것이다. 상부상조의 미학,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궁무진 하다.

일석 삼조,  
마라톤 대회  
신청 중!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단합과 체력증진,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부산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달 17일 9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흰 백사장이 매력적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회사부담 2만원, 본인부담 1만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직원은 참가비를 지참하여 경영지원부로 신청하면 된다. 전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우리 회사의 단합도 쌓고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도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생생현장의 소리

김경수 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하는 빛



우리는 평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한다. 혹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겨있는지 무심결에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설계이다. 설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설계부에 근무하는 입사 4년 차의 김경수 대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의 손길을 제일 먼저 거쳐야 한다.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세심하고 꼼꼼해질 수 밖에 없다는 그, "설계는 기초이고 설계가 잘 되어야지만 후의 부서가 문제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주의를 하지만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다고 한다.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후의 부서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내보였다.

이런 세심함을 가진 그가 모범사원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개인적인 상이리기보다는 설계부 대표로 받게 된 상이라 생각한다. 집에서 상패를 받고 보니 실감이 나지 않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설계를 하고 설계자 도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나갈 때, 그리고 '선보'와 나란히 이름이 적힐 때가 가장 좋다는 김경수 대리. '선보'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함께 인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번 상이 과거의 칭찬이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라 생각하고 내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내보였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임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 나가고 관리해야 할 것 같으며 앞으로 다른 사람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함께 남겼다.

이번 그의 모범사원상은 이유 있는 수상이지 않나 생각된다. 퍼즐을 완성시키듯 그의 설계가 토대가 되어 다른 부서와 함께 퍼즐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어 나간다. 작업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빛을 발하여 환히 밝아다 작업이 끝날 때쯤 소멸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의 빛이 있었기에 멋진 퍼즐이 완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5호 주인공 | 강종만 반장

당당한 자부심에서 No.1 되기



**Q 칭찬 릴레이 35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조금은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저 제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마 평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목포 공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낯설지만 한데 그 첫 주자에 제가 된 것이 신기하긴 하네요. 이번 칭찬 주인공이 된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어느덧 선보에서 근무한지 6년이 지났네요. 주로 퓨리파이어 유니트와 포터블 탱크를 주로 작업하고 있으며, 힘들게 야근과 철야작업을 할 때도 많지만 선주, 선급에게서 검사를 받고, NO.1이라는 말

을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이 바로 저의 피로회복제가 아닌가 싶어요. 작업을 마치면 힘들었던 생각도 많이 나지만 잘 마무리 된 것을 볼 때 자부심이 많이 느껴져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원들에게도 우리 팀은 항상 최고의 팀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각자가 자신의 맡은 일에서 내가 최고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격려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Q 36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주위에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번 주인공으로는 목포 공장의 터줏대감 김덕현 대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항상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자신의 일만 해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주위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참으로 인정 많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김덕현 대리를 다음 주인공으로 칭찬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그림찾기 5개



**축하합니다!**

<b>본사</b>	<b>고객지원</b>
<b>일원</b> 박기재(4/19)	정차권(4/19)
<b>경영지원</b> 정민걸(4/19)	권두철(4/1)
<b>경영기획</b> 안정빈(4/2)	김유성(4/2)
<b>지재조달</b> 손정택(4/3)	임인혜(4/1)
서성석(4/19)	조경선(4/1)
김혜민(4/5)	김기주(4/1)
<b>본사설계</b> 김동걸(4/2)	<b>1공장-출하</b> 김진성(4/2)
김구영(4/15)	<b>3공장-출하</b> 강동주(4/19)
최진영(4/24)	
<b>1공장</b> 김중희(4/7)	<b>구명 생활</b>
<b>유성산업</b> 강재현(4/16)	<b>지재운영</b> 하경원(4/20)
<b>광진공업</b> 박철우(4/23)	<b>설계5팀</b> 김갑진(4/15)
손성훈(4/14)	곽봉지(4/25)
	<b>설계6팀</b> 김언진(4/5)
<b>2공장</b>	<b>대한ENG</b> 전용선(4/18)
<b>지재운영</b> 김유성(4/30)	장봉희(4/28)
<b>출하준비</b> 최봉순(4/18)	왕합의(4/15)
<b>배관팀</b> 김중민(4/1)	박종민(4/29)
<b>정수ENG</b> 전민호(4/22)	조재선(4/20)
허한정(4/22)	<b>사명PLANT</b> 김형석(4/3)
허정민(4/20)	지기권(4/18)
<b>산업공업</b> 정성열(4/14)	
<b>3공장</b> 최재희(4/19)	<b>구명 입사일</b>
	생산관리 조영희(4/2)
	<b>입사기법일</b>
	지재운영 하경원(4/10)
	설계5팀 김갑진(4/26)
<b>경영지원</b> 정민걸(4/1)	<b>영도 입사일</b>
김영민(4/1)	입원 김양대(4/15)
<b>품질경영</b> 박승모(4/1)	선각 성창환(4/2)
<b>지재조달</b> 이수현(4/28)	<b>지재지원</b> 김상철(4/7)
<b>기술영업</b> 박종혜(4/2)	
<b>설계2팀</b> 최우호(4/1)	
<b>설계3팀</b> 주원석(4/14)	
<b>생산관리</b> 임영삼(4/30)	
이창민(4/2)	
김문철(4/28)	
장기봉(4/16)	
<b>품질보증</b> 이현우(4/1)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